

<토론요지>

「문학과 현대문명의 문제」에 관한 토론

박무호
프랑스어 · 프랑스학과

본 토론자는 영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도 아주 미약하고, 현대문명에 관한 담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90년대 이후 유행(?)처럼 번지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도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문명의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깊은 모색에 대해 중요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보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세미나의 성격에 맞추어서 이후에 전개될 토론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I

상세한 설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사항이라 생각되지만, 발표자에게 약간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표자는 현대문명의 전개와 함께 글을 읽을 수 있는 문자해독률은 증가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 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갖게 되었지만, 그런 이점과 함께 문학과 인생에 대해 반성적으로 진지하게 사고하고 접근할 여유를 박탈해 간 측면도 공존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책을 접하게 되면 문학과 인생에 대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대문명을 자본주의경제나 자본주의 생산관계보다 기술 공학적·벤삼적 문명이라는 용어를 택하는 리비스에게 그 나름의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제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정당한’ 인식이 그의 논지에 다른 약점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발표문 1쪽)라는 발표자의 말씀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II

발표자는 디킨즈의 소설 『어려운 시절』의 구체적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소설의 무대인 코크타운이라는 도시를 ‘사실’만이 지배하는 획일적인 반생명의 도시로 만든 원리가 바로 근대의 구성적 특징을 이루고 있는 공리주의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작가인 디킨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공리주의를 불온시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실’만이 지배하는 이 도시 학교가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추상과 계산의 정신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전제한 후, 발표자는 계산 혹은 산술의 정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결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상의 정신에 대해서는 큰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것인지요? 아니라면 추상의 정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킨즈는 봉건질서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반동이어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리주의적 개

혁을 통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달리 말하면 개혁을 추진하는 기본 정신과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고 발표자는 전제하고서, 두 주인공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토론자 입장에서 의문은 — 그리고 한정된 작품에 대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디킨즈가 ‘개혁을 추진하는 기본 정신과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이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작품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바로 뒤의 발표문에서 의문을 제기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발표자는 후기자본주의에 대해 지금까지 자본에 대한 저항진지의 역할을 하던 자연과 무의식마저 자본에 의해 식민지화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하고서, 특히 문학의 경우에도 자본이 문학 예술을 직접 포섭하여 자기 증식에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문학가 자신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는 디킨즈의 실제 생각은 사실/상상의 이분법을 지양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리주의의 합리성을 뛰어 넘는 진정한 합리성에 의해 기존의 가치와 교육, 생산체계의 조직원리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 디킨즈는 작품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떠오르는 의문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의문은 발표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제임슨의 현대문명에 대한 해석 부

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표자는 예술작품이 자본과 결합하고 있는 현대의 상황을 두고 “자본이 필요한 이런 변화를 제임슨이 문화의 소멸이 아니라 문화영역의 확장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이 “그의 특이한 면”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의문이 생겨납니다. 발표자가 말하는 “그의 특이한 면”은 제임슨의 그런 생각에 발표자께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동의한다는 뜻인지가 우리 의문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슨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면 9쪽에서 말하는 “사회와 모든 영역에서 문화가 엄청나게 팽창했다고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발표자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과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임슨의 이런 견해는 발표자가 앞부분 즉 2쪽의 팔호 안 부분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예술은 근대의 대세에 저항하는 반대파의 위치를 포기하고 자본에의 투항을 적극적으로 결행하는 상품미학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과 대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과제는 도구적 이성을 단순히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발전해온 세계 체제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발표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의 문제제기와도 관련이 되지만 만일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면, 좀 더 과장하자면 언제나 뒤따라가면서 드러난 문제들만을 논의하는 것이 문학이라면, 문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언젠가 소멸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발표자가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